

여수 기름유출 규모·피해보상 어떻게

800ℓ → 1만ℓ → ? 정확한 유출량도 모른다

13만여 ℓ 용적 송유관 파손... 기름막 10여km² 확산

선주 상호보험으로 보상... 문제는 보상률·보상시기

여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일로 사흘이 지났지만 정확한 기름 유출량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고 규명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보상 절차 등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름 얼마나 유출했나? = 애초 사고발생 직후 기름 유출량이 800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에 1만ℓ 라는 해경 측 추정치가 나왔다.

본으로 25분 동안이나 걸려 그동안 기름이 계속 세어 나갔을 가능성까지 더하면 기름 유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송유관 주변 상시 오일펜스를 넘어 먼바다로 유출된 기름의 양이다. 방제작업에 나선 해경은 육안으로 확인 결과 유출량이 1만ℓ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추정치는 기름띠가 더 넓게 퍼지면 또다시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다.

해경 측은 통상 1㎝ 두께의 얇은 기름막이 약 1km² 반경에 퍼지면 1000ℓ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본다. 현재 기름막이 약 10여km²에 퍼져 있어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관에서 기름유출이 시작된 탓에 해경과 GS칼텍스 측은 정확한 기름유출량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나도록 '조사 중'이라는 공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신덕마을 주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발표보다 기름 유출량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이들은 생각보다 기름이 퍼진 정도로 볼 때 유출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여수에서는 지난 1995년 7월23일 여수시(당시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 바다에서 태풍 '페이'로 인해 호남해운 소속 14만5000t급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되면서 5035t의 원유와 방커C유가 유출된 바 있다.

해경 측은 통상 1㎝ 두께의 얇은 기름막이 약 1km² 반경에 퍼지면 1000ℓ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본다. 현재 기름막이 약 10여km²에 퍼져 있어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GS칼텍스 측에 따르면 사고 유조선이 부순 송유관은 모두 3개다. 각각의 지름이 36인치, 30인치, 18인치인 원유, 나프타, 원유보조관이다.

유조선이 부딪혀 파손된 지점부터 기름을 잠글 수 있는 밸브까지의 거리가 100여m에 달해 3개의 송유관의 용적은 13만1000ℓ라고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률과 보상 시기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보상률이 28.8%에 그치고 국내 기름 유출 사고의 보상률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도 16개월이 지나서 IOPC에 보상을 신청했고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는 6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주민들이 사정 재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7만

사고 당시 송유관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면 13만여ℓ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다는 말이다.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사고 경위

광주시 올해 1800억 국비 추가 확보 나서 총액·공모사업 31건 신청

광주시가 올해 1800억원대의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총액·공모사업 31건에 국비 1791억원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조1573억원의 국비를 배정받은 광주시는 국

가 정책과 연계성, 사업 타당성, 파급 효과, 지방비 부담 능력, 사업 추진 역량 등을 고려해 추가로 총액·공모 사업을 신청했다.

시가 추가로 신청한 총액사업은 대기환경오염예방 사업(16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9억원), 서민 보



2일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해경 등 관계자들이 유조선이 충돌해 엇가리처럼 휘어버린 송유관과 지지대 등을 살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등을 떠나 일차적으로 사고 선박(1천300억 한도)이, 2차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1789건, 국제기금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6만3141건으로, 이중 무려 12만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보상률과 보상 시기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보상률이 28.8%에 그치고 국내 기름 유출 사고의 보상률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고였던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지만 이번 여수 사고는 상대적으로 기름 유출 규모가 작아 이마저도 미지수다. 실제로 1일 사고현장을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상문제는 원유 사고고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는 방제에 신경써 피해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이번 사고를 일으킨 선사 측에서는 10억 달러의 선주 상호보험(P&I)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피해 보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사업(41억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25억원), 신특화사업지원(150억원), 문화전단지구 보행환경개선(10억원) 등 21건 754억원을 신청했다.

광주시 서병천 재원조정 담당은 "신청사업 예산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방문 설명,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I 전국 확산

5일까지 전통시장 닭·오리 판매 금지

영암·밀양 확산... 설 잇은 방역

판매점·농장, 소독·정밀검사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시행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오일장 산단 판매점의 닭·오리 판매를 금지하고, 닭·오리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를 한다.

또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또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영암과 경북 밀양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되는 등 AI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바꿨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판매점의 닭과 오리 모두 치운 뒤 일제소독하고,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정밀검사를 한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가 닭·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경우 사전에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 후 반드시 세차·소독해야 하고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등도 제한된다.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피해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남 밀양시 초동면의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폐사는 고병원성 AI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AI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31일 영암의 씨오리 농장도 고병원성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접수된 AI 의심 신고 4건(해남 송지, 나주 세지, 영암 덕진 2건) 중 3건이 AI로 확인됐다. 영암의 다른 오리 농장은 확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2일 정부와 전남도는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와 의견을 받아들여 5일까지 전통시장 등지에 닭·오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정부는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생아들어 5일까지 전통시장 등지에 닭·오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한편 전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507명, 경찰 160명, 군인 94명, 축협 직원 27명, 일용직 250명 등 1038명을 투입해 115곳의 방역초소를 운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철새 도래지 AI 항공방역 '오락가락'

"광범위 소독 효과적" vs "철새 흩어져 더 확산"

전남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가 AI 감염원으로 지적되면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역 논란이 빚고 있다. 헬기를 동원해 광범위한 도래지를 효과적으로 소독하자는 의견과 오히려 철새가 놀래 흩어지면 AI만 확산한다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는 철새 도래지인 영암호와 고천암호에서 대대적인 항공방역을 할 예정이었으나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지 못해 계획을 취소했다.

또 헬기가 돌아다니면 새가 흩어지는 등 오히려 AI의 확산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6만 939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3만3339마리와 비교해 11.1% 증가할 수다.

2일 전남도는 "이 지역 철새 도래지를 지난 29일 항공방역 하려다 헬기를 동원하지 못하고, 환경 단체의 일부 반대에 따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주유기 전임연구원은 "항공방역로 쫓겨간 철새가 민가 주변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4~26일 전국 195개 철새도래지

조사 지역 중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은 곳은 금강호(25만8221마리)였고 AI가 첫 발생한 전북 동립저수지(7866마리), 태화강(5만2천626마리), 삼교호(4만7906마리), 울산 구룡포 해안(3만8398마리) 순이다.

또 AI 감염원으로 알려진 가창오리는 전국에서 모두 36만5641마리가 확인됐다. 가창오리가 관찰된 15곳 중 1만 마리 이상 서식하는 곳은 금강호, 동립저수지, 영암호, 삼교호 등 4곳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황우여 "AI 검사권한 지방에 이양해야" 고병원성 확진 3일 걸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경기도 의정부의 경기가족방역대책본부 찾아가 "AI 검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시·도 단위로 수의사나 시설을 갖춘 수 있으니 고병원성에 대해 즉각 확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병원성 전염을 예방하는 것

인데 3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렇게 허비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에서 일단 확진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기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트렌즈

2014년도 협력업체 모집 공고

(주)서진종합건설에서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 공종 [22공종]**
토공,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구조물], 건축, 조적, 방수, 미장, 타일, 단열 및 흡음, 도장, 금속 및 집철물, 수장유리, 석호, 석공사, 조경, 인테리어, 철거, 전기, 설비, 소방, 통신
- 신청자격**
1. 공종별 영위기간 3년 이상 경과한 회사
2. 시공능력평가액, 등록공종 전국순위 40%이상
3. 신용평가등급 B-이상이며, 현금흐름 B-이상 [신용평가기관]
- 등록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등록 및 제출서류	01. 24. ~ 02. 06.	우편제출: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상생길 71 (주)경방건설 E-mail : sns9114@hanmail.net	
서류평가	02. 07. ~ 02. 13.	※첨부서류 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등록신청공종의 건설업등록증 5. 기업신용평가서 6. 품질환경 인증서 7. 시공능력순위확인서 8. 보유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명서 9. 등록신청공종의 3년간 공사실적 총괄표 및 내역표 10.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11. 국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공동주택 시공실적 우수업체 우대
등록심사	02. 14. ~ 02. 20.	(주)서진종합건설 외주팀 (당사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확정공고	02. 21. ~ 02. 25.	선정업체 심사 후 업체별 개별통보	

※ 관련문의 061-383-4332 담당자 허연실 과장

(주)서진종합건설